

## 잡아함 84. 청정경

---

날짜: 3월 31st, 2024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697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색은 무상하다. 무상하다면 괴로운 것이요, 괴로운 것은 나[我]가 아니다. 나가 아닌 것에 대해 ‘그 일체는 나도 아니요,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,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’라고 사실 그대로 알면, 이것을 바른 관찰이라 한다. 수 · 상 · 행 · 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.

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이 5수음에 대해 ‘그것은 나[我]가 아니요, 내 것[我所]도 아니다’라고 관찰한다. 이렇게 관찰하면 모든 세간에서 전혀 취할 것이 없게 되고, 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게 되며,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열반(涅槃)을 깨달아 ‘나의 생은 이미 다 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,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’라고 스스로 아느니라”

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, 모든 비구들은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.

---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